

### GBT사와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약취소결의안

|       |                        |
|-------|------------------------|
| 의안번호  | 제394호                  |
| 의결년월일 | 2000. 10. 20<br>(제81회) |

발의년월일 : 2000. 10. 16

발 의 자 : 박노철 의원 외 26인

#### 1. 주 문

○ 부천시가 2000년 10월 4일 미국 GBT사 및 CH2MHILL과 계약한 세계 최대 규모(1일 2,000t 처리 용량)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 계약을 취소 또는 재고할 것을 다음과 같이 주문함

#### 2. 제안이유

○ 부천시가 세계 최대 규모(1일 2,000t 처리 용량)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외자유치 하면서 그 추진과정에서

-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음은 물론,
- 교통·환경 등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없었고,
- 신뢰할 만한 기술적인 검증도 없었기 때문에
- 향후 시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가능성이 농후하여

그 계약을 취소 또는 재고할 것을 8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가. 부천시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유치·건설함에 있어 반드시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시민적 합의가 있어야 함

나. 신뢰할 만한 기술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 최대 규모(1일 2,000t 처리)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정은 졸속 행정으로서 지양되어야 함

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사전에 이에 대한 교통·환경 등의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라. 부천시민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기도의 외자유치 실적을 위해 체결된 계약인 만큼, 부천시민의 자치권을 무시한 GBT사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 계약은 취소, 재고되어야 함

### GBT사와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약취소결의문(안)

부천시의회 의원은 2000년 10월 4일 미국 GBT사 및 CH2MHILL과 부천시장이 계약한 1일 2,000t 규모의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추진과정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음은 물론, 향후 부천시에 미치는 교통·환경상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없이, 더욱이 신뢰할 만한 기술적인 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은 매우 큰 위험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계약은 반드시 취

소 또는 재고되어야 함을 시민의 대변자로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 인천, 경기 일원 등 수도권 주변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을 부천시 대장동에 유치·건설함에 있어 당연히 부천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시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신뢰할 만한 충분한 기술적인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1일 2,000t 처리 용량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무모한 전시·줄속행정으로서 지양되어야 한다.
3. 1일 2,000t의 음식물쓰레기를 부천시 대장동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교통·환경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부천시민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기도의 외자유치 실적을 위해 강행 추진되어 계약이 체결된 만큼 부천시민의 자치권, 자치행정을 무시한 GBT사와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 계약은 당연히 취소 또는 재고되어야 한다.

2000. 10. .

부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